

“중소기업 공공조달 진출, 제도 손질 필요해”

중소기업중앙회, ‘공공조달 제도 개선’ 정책연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중소기업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동 연구회는 기존 예산 절감 및 관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학계·연구계·법조계를 중심으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2023년 8월 발족한 공공조달 전문가 모임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제도는 부정당업자 제제 시 모든 기관에 대해 모든 제품의 납품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제제에 해당하는 특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중소기업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제품, 해당 특정 기관에만 납품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를 위해 예정가격 결정 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하한율도 현재 80~84%에서 88%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조달계약 체결 후 원재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공사계약 시에는 특정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

할 수 있으나, 물품 제조계약 시에는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 모든 비용이 몰려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아 사실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23년 민수시장에 도입된 납품 대금연동제를 공공조달시장에도 도입해 원재료 가격만 상승하더라도 이를 계약대금에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국내 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4.8%를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며 “조달계약제도는 구매계약의 경제성과 효율성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 정부 출범 시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북전주농협은 지난 10일 전주시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북전주농협 딸기 공선회에서 생산하는 딸기 품종 ‘설향’, ‘금실’을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금실·설향’ 캄보디아에 수출

북전주농협, 딸기 공선회서 생산하는 딸기 선적식

북전주농협은 지난 10일 전주시와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북전주농협 딸기 공선회에서 생산하는 딸기 품종 ‘설향’, ‘금실’을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설향은 국내 딸기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딸기 품종이고 금실은 크고 단단하며 식감이 매우 좋아 수출에 적합한 품종이다.

북전주농협에서는 딸기 농가의 발전을 위하여 2021년도에 GAP딸기 공동선별장을 신축함에 따라 생산량과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금번 캄보디아에 북전주 권역 딸기를 첫 수출하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행사에 참여한 송영진 시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딸기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이 뜻깊은 수출 성과는 농가의 노력과 관계 기관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번 수출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격려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조합원이 잘사는 농협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캄보디아 딸기 수출이 큰 의미를 가진다”며 “철저한 선별·관리를 통하여 k푸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美 ‘한국식품타운’ 조성 중소기업 유치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제니 리(Jenny Lee)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Garden Grove City) 인사국장이 만나 현지 한 국식품타운 조성 및 한국 중소기업 유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든그로브시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카운티는 10만명 이상의 한인인 거주하고 있는 미국 최대 한인밀집지역 중 하나로, △다양한 아시아계 인구 △높은 소득 수준 △한류 콘텐츠의 인기 등과 맞물려 K-푸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니 리 인사국장은 가든그로브시에 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한 최초의 한인 직원이자 고위직 공무원으로, 한국 중소기업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은 한국 중소기업이 만드는 화장품과 식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가”라며, “한국식품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해 우수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미국 현지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기온 급격히 떨어져... 개화기 과수 피해 예방 조치 서둘러야

농진청, 경기·충북 북부·강원 중부 내륙·전북 동부권 과수 농가 주의

농촌진흥청은 13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과수 농가에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기상청 단기예보(4월 10일 오전 11시 기준)에 따르면 12일까지 최저 4도~최고 25도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다가, 13일에는 최저 2도~최고 16도 수준으로 기온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강원 중부 내륙, 충북 북부, 전북 동부권에 있는 과수 농가는 저온 피해 최소와 사전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재 만개기에 접어든 배와 복숭아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배는 영하 1.7도 복숭아는 영하 1.1도 정도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저온 피해 입은 배꽃

13일 최저기온(2℃) 주요 지역으로는 과주, 가평, 철원, 대관령, 평창, 충주, 제천, 장수, 무주, 임실 등이다.

과수 농가에서는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경감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저온이 예보된 하루나 이를 전에

과수원에 충분히 물 대기를 하면 낮 동안 흡수한 태양에너지가 밤에 방출돼 과수원 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과수원 바닥에 있는 잡초나 비닐 등 파복물을 제거하면, 토양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과수 농가는 기상청 최신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별농장 저온 위험 경보를 알람으로 받으면 농작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최근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지방청 R·D 설명회 개최

지방청 R·D,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법·신청시스템 사용법 등 안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방청 R&D창업성장, 기술혁신) 설명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전북중기청에서 개최한다.

올해 전북중기청에서는 업력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성

장기술개발사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D 과제 도전이 어려운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사업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청 R&D창업성장, 기술혁신) 지원사

업 안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법 및 신청시스템 사용법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전세희 전북중기청장은 “중소기업 R&D 지원은 수년간 전국단위로 공모했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청 R&D 추진으로 전북 중소기업의 R&D 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청과 기업간의 접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벤처기업청, 글로벌 플랫폼 활용 수출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1일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은 2017년부터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사업별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270개

사를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향 자사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뷰업,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개사를 지원한다.

지난해 미국 아마존에 입점한 (주)그라스메디는 글로벌쇼핑몰 사업에 참여하여 마케팅 심화 교육 및 1:1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원기간 7개월만에 연간 수출액이 65.5만불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규모이다. 수출국가도 7개국 전년대비 4개국 확대함으로써 수출 다변화에도 성공하였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13.8억달러 중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10.1억 달러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비중이 전체의 73.2%를 차지하고 있어 온라인 수출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큰 분야이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